

웹툰을 오래 보아 온 독자라면 알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은 보통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은 결제가 부담스럽고, 어느 달은 시간이 없어서 정주행만 겨우 한다. 이런 리듬 속에서 합법적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놓치지 않고 챙겨 볼 수 있다. 제공사마다 무료 혜택의 주기가 다르고, 쿠폰과 대여 정책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매달 초가 되면 몇 군데 플랫폼의 이벤트 공지와 업데이트 캘린더를 쭉 훑는다. 몇 분 투자해 정리해 두면 한 달 동안 생각보다 많은 편수를 무료로 읽게 된다.

아래에 적은 링크모음은 불법 복제나 미러링과 무관하다. 모두 공식 서비스의 사이트 주소모음이며, 각 플랫폼이 운영하는 합법 무료 정책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덧붙여, 월별로 어떻게 루틴을 짜서 업데이트를 따라가면 좋은지, 쿠폰과 대여권의 주기를 어떻게 묶으면 손해를 줄이는지, 장르별로 어디서 먼저 무료 공개가 뜨는지 실무 감각으로 설명한다.

무료웹툰, 어디까지가 무료인가

무료웹툰이라는 단어가 흔하지만 실제 구조는 세분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권 - 흔히 기다리면 무료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다. 보통 24시간, 72시간, 혹은 7일 간격으로 다음 화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해 주는데, 회차마다 대기 시간이 따로 돌아간다. 이 외에도 기간 한정 무료, 첫 3화 무료, 1권 무료, 주말 무료 같은 형태가 있고, 특정 요일에만 무료 개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회차가 중간중간 섞여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1화부터 30화까지는 기다리면 무료, 31화부터 최신분은 유료 선공개로 바뀌는 식이다. 플랫폼마다 저작권 계약과 수익 배분이 달라서 횟수와 주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이벤트와 정책 공지를 챙기고, 내가 보는 작품의 회차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체크해 두면 쓸데없는 결제를 줄일 수 있다.

경험상, 완결작의 경우 특정 연휴나 기념일에 묶음 무료가 자주 열린다. 반대로 연재 중인 화가 뜨거운 신작은 대기권 주기가 길어지거나 무료 범위가 짧은 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월별로 정리하면 체감 혜택이 커진다.



믿고 쓰는 합법 플랫폼 링크모음

아래 다섯 곳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월별 무료 혜택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사이트 주소모음의 핵심만 추려 링크를 건다.

- 네이버웹툰: <https://comic.naver.com>
- 카카오웹툰: <https://webtoon.kakao.com>
- 카카오페이지: <https://page.kakao.com>
- 레진코믹스: <https://www.lezhinus.com/ko>
- 리디 웹툰: <https://ridibooks.com/webtoon>

각 플랫폼은 앱과 웹의 구성이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은 요일 기준의 업데이트 구조가 명확하고, 매달 특정 주에 장르 기획전이 돌곤 한다. 카카오웹툰은 연출형 뷰어와 대기 무료가 강점이고, 카카오페이지는 웹

소셜과의 크로스 프로모션이 많다. 레진은 완결 비율이 높아서 기간 한정 무료가 깔끔하게 걸리는 일이 잦고, 리디는 대여권과 포인트 쿠폰의 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이다.

그 밖에 살펴볼 곳

범위를 넓히면 토믹스 <https://toomics.com>, 봄툰 <https://www.bomtoon.com>, 코미코 <https://www.comico.kr>, 미스터블루 <https://www.mrblue.com>, 탑툰 <https://tooptoon.com> 같은 플랫폼도 있다. 성인 장르 비중이 높은 곳도 있으니 연령 제한과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자. 작품 풀과 무료 정책이 각자 달라서, 한 플랫폼에서 막힌 작품이 다른 곳에서는 기간 한정 무료로 열리는 식의 교차 기회가 종종 생긴다.

해외 거주자라면 글로벌 네이버웹툰 <https://www.webtoons.com> 과 타파스 <https://tapas.io> 도 선택지다. 다만 한국어 [사이트 주소모음](#) 원문과 업데이트 속도가 차이날 수 있고, 시즌 무료 이벤트의 타이밍도 국내와 어긋난다. 이 경우 한국어판과 글로벌판을 각각 북마크해 두고, 월별 메모에 두 플랫폼의 이벤트 일정을 따로 적어두면 혼란이 줄어든다.

월별 링크모음을 실제로 쓰는 방법

링크만 모으면 금세 복잡해진다. 매달 초에 업데이트 캘린더와 무료 혜택을 점검하려면, 내 계정의 사용 습관에 맞춘 워크플로를 만드는 편이 빠르다. 간단히 말해, 작품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된다.

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열을 네 개 만든다. 플랫폼, 작품명, 무료 정책 유형, 비고. 무료 정책 유형에는 기다무 24h, 7일 전용 대기, 기간 한정 무료, 1권 무료 같은 값을 통일해 넣는다. 비고 칸에는 예를 들어 5월 5일까지 무료, 주말만 무료, 쿠폰 필요 같은 조건을 적는다. 이렇게 하면 필터를 걸어 이번 달 만료가 임박한 무료 혜택만 따로 볼 수 있다.

하나 더, 달력을 병행한다. 구글 캘린더나 네이티브 캘린더에 반복 일정을 활용해서, 대기권 회전일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대기권을 소모했다면 다음 표시는 목요일 같은 식의 1일 반복이다. 작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무료 회전 주기는 몇 가지 패턴으로 묶이므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주기를 정확히 적어두면, 알림만으로도 오늘 어떤 작품이 무료로 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달에는 이벤트가 몰린다

연말과 새해 초, 대형 명절 직전, 대학교 방학 시작 즈음에는 플랫폼별 기획전이 크게 열린다. 가령 1월 첫째 주에는 연말 결산과 함께 베스트 완결작의 1권 무료, 혹은 10화 무료 같은 딜이 붙는 경우가 많다. 5월 어린이날, 9월 추석 주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도 장르 묶음 무료 공개가 빈번하다. 이런 시기에는 링크모음의 첫 화면에 기획전 페이지를 올려두자. 이벤트 페이지는 주소가 자주 바뀌는데, 플랫폼 메인에서 배너를 누른 뒤 그 URL을 저장하면 된다.

반대로 시험 기간이나 연휴 직후에는 업데이트가 약간 느려지거나, 무료 공개가 축소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는 대기권 위주로 천천히 분산해서 읽는 편이 낫다. 무료가 줄어든다고 무리해서 전권 결제하면, 한 달 전체의 예산 배분이 틀어진다. 월별로 강약을 조절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네이버웹툰, 어떻게 월별로 본전 뽑나

요일제 업데이트가 분명해서 루틴 만들기가 쉽다. 즐겨찾기를 요일별로 나눠 두고, 월초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요일별 특집을 확인한다. 네이버는 자체 코인 결제 비중이 높지만, 연휴와 기념일마다 무료 분량을 붙이는 관행이 있다. 이벤트는 메인 상단 배너, 혹은 공지사항 탭에 뜬다.

월별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시즌 전환 시점이다. 인기작이 시즌 2를 시작하면 앞 시즌 일부가 기간 한정 무료로 풀리고, 중간에 휴재한 만큼 한꺼번에 몰아서 보기가 수월하다. 둘째, 신규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 장르 주간 같은 기획에서 첫 3화 무료, 특정 회차 쿠폰 지급이 함께 붙는다. 이 조합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같은 시간 투자로 더 많은 작품을 맛보게 된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기다무의 리듬 읽기

카카오웹툰은 인터페이스가 화려하고 대기권 디자인이 명확하다. 회차당 24시간 혹은 72시간 주기가 돌아가는데, 회차 내에서 스토리 아크가 끊기는 지점이 보이면, 기다무 주기를 고려해 다음 묶음으로 넘기는 전략이 통한다. 가령 5화마다 소재목이 바뀌는 작품은 5화 단위로 모아 읽으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이 묶음 읽기를 월별로 스케줄링하면, 무료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진다.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과의 교차 이벤트를 살피는 맛이 있다. 원작 소설을 일정 분량 무료 공개하면서, 웹툰을 1권 무료로 맞춰 주는 사례가 있다. 월초에 페이지 메인의 기획전과 장르관 상단 배너만 확인해도 절반은 정리가 된다. 간혹 쿠폰팩이 앱 푸시로만 배포되므로, 푸시 알림을 최소한 기획전 카테고리만이라도 켜 두는 편이 안전하다.

레진코믹스와 리디, 완결작 위주의 한 달 운용

레진은 완결 비중이 높은 편이라, 월간으로 무제한 대여권이나 1권 무료 같은 행사가 자주 돈다. 완결작은 초반 몇 화가 강력한 후크를 걸고, 중반부에서 갈등이 크게 폭발하는 구조가 많다. 초반 무료로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두세 작품만 집중하는 것이 낫다. 레진은 앱 전용 쿠폰이 종종 있으니 웹과 앱을 모두 열어본다.

리디는 웹툰과 만화에 대여권, 포인트, 출석 보너스가 균형 있게 나온다. 특히 월초 출석 7일 누적 보상 같은 정기 혜택을 놓치지 말자. 리디의 장점은 장르 필터가 세밀하다는 점이다. 월별로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전략, 예를 들어 6월은 스포츠, 7월은 로맨스 판타지처럼 목표를 정하면 무료 큐레이션의 효율이 오른다. 장르관의 상단 배너는 대개 2주 간격으로 교체된다. 교체 주간에는 링크를 새로 저장해 두어야 죽은 링크를 따라가지 않는다.

월별 루틴, 이렇게 설계하면 편하다

경험상 다음 순서가 가장 간단하다. 월초 1일, 월중 15일, 월말 28일에만 시간을 쓰자. 월초에는 각 플랫폼 메인과 공지,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업데이트하고, 대기권 회전 주기를 재정렬한다. 월중에는 반달 동안 놓친 쿠폰과 기간 한정 무료를 점검한다. 월말에는 완결작 위주로 다음 달에 이어갈 작품을 골라 북마크를 정리한다.



매일 접속하는 대신 주 2회 정도로 묶는 것도 방법이다. 화목, 토일 같은 요일 고정 패턴을 정해 두면, 요일제 업데이트와 대기권 회전이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패턴을 만들면 읽는 시간과 비용 모두 예측 가능해진다.

알림 설정과 기록의 디테일

앱 푸시는 소음이 되기 쉽다. 플랫폼별로 꼭 필요한 항목만 남겨라. 이벤트, 쿠폰, 즐겨찾기 업데이트, 이 세 가지만 켜도 충분하다. 메일 뉴스레터는 스팸 같은데, 가끔 굵직한 묶음 무료가 메일로만 선공지되는 경우가 있다. 전부 구독하지 말고, 한 달에 두세 번 오는 안내만 남겨두자.

기록은 짧게 적되, 나중에 검색이 되도록 통일하자. 작품명은 공식 표기를 쓰고, 회차 표기는 Ep.12 같은 형태로 맞춘다. 무료 정책은 표준 약어를 쓰면 좋다. WF24, WF72, FL - 1권무료, TL - 기간한정 같은 식으로 정리하면 열을 적게 차지하고도 의미가 분명해진다.

보안과 저작권, 반드시 확인할 사항

링크모음을 만들다 보면 검색으로 우회 링크를 타기 쉽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출처 불명의 사이트로 들어가면 브라우저 하이재킹이나 악성 스크립트에 노출된다. 유료 회차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곳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지만, 독자 입장에서 카드 정보 탈취, 계정 도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합법 무료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

- 도메인을 확인하자. 회사명이 포함된 1차 도메인인지, 철자가 한 글자 다른 변종 도메인인지 살핀다.
- 로그인 공식 앱 또는 공식 웹에서만 한다. 단축 URL, 메신저 링크를 통한 login은 피한다.
- 브라우저에서 HTTPS, 자물쇠 아이콘을 확인하고, 보안 경고가 뜨면 접속을 중단한다.
- 결제 수단은 가상카드나 간편결제로 한정하고, 정기 결제는 월말에 한 번씩 점검한다.
- 광고 차단을 쓰더라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노출은 이해하되, 팝업 허용은 최소화한다.

데이터와 기기, 장시간 보기의 현실적인 팁

웹툰은 이미지가 많아 데이터 소모가 크다. 특히 연휴에 외출해서 몰아보면 기가 단위로 빠진다. 월별 루틴을 짤 때, 와이파이 환경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골라 두자. 리디나 레진처럼 앱에서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곳은 주말 전에 필요한 분량을 받아두면 데이터 요금에서 자유로워진다.

기기는 태블릿을 권한다. 세로로 길게 보는 웹툰의 특성상 화면이 클수록 시야 피로가 덜하다. 밤에는 다크 모드와 블루라이트 필터를 함께 쓰면 눈이 편하고, 긴 스크롤 장면에서 화면 주사율이 높은 기기가 이점이 있다. 다만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배터리를 더 먹으니, 장거리 이동 시에는 60 Hz로 낮추는 편이 낫다.

실제 한 달 운용 예시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가 길었다. 그 달의 메모를 다시 보니 이렇다. 1일, 네이버에서 장르 기획전이 시작되어 로맨스 10편의 1권 무료가 떴다. 나는 그중 세 작품만 골라 첫 5화까지 맛보기로 읽고, 이어서 읽고 싶은 작품 두 개를 별표 표시했다. 같은 날 카카오페이지에서 원작 소설 - 웹툰 동시 무료가 7일까지 열렸고, 소설을 먼저 3화 읽어 세계관을 익힌 뒤 웹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료 쿠폰을 하나 더 받았다. 4일에는 레진 완결작 20% 대여권이 왔다. 대여권은 유료지만, 연휴에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이었기에 한 작품을 골라 1권을 대여해 두었다.

연휴 시작일에는 리디의 장르전에서 스포츠 웹툰 1권 무료가 떠 있었다. 이동 중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와이파이로 5권까지 내려받아 두었다. 다음 날 카카오웹툰의 기다무 회전이 돌아왔고, 전날 읽다 만 작품의 다음 회를 무료로 봤다. 이런 식으로 연휴 5일 동안 유료 결제 없이 40화가 넘는 분량을 소화했고, 대여권으로 추가 8화를 합쳐 총 50회차를 읽었다. 비용은 0원, 데이터는 사전에 받은 다운로드 덕분에 1 GB도 쓰지 않았다.

핵심은 월초에 링크모음을 정리하고, 이벤트와 기다무의 리듬을 달력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읽을 때마다 검색창을 열지 않아도 되고, 죽은 링크를 타지 않으니 시간 낭비가 없다. 이 정도만 해도 체감 효용이 크게 오른다.

장르별로 다른 동선

로맨스와 로판은 카카오 계열에서 무료 큐가 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릴러와 호러는 네이버의 요일제 편성이 풍부하고, 시즌제 전환마다 무료 분량이 한꺼번에 풀리기도 한다. 무협, 판타지는 리디에서 묶음 대여나 1권 무료가 자주 돌아가니 월말에 한 번 모아서 체크하는 편이 낫다. 성인 장르는 플랫폼 정책상 앱 전용 이벤트가 붙는 경우가 많아, 웹 중심으로 링크모음을 관리한다면 놓치기 쉽다. 필요하다면 앱 전용 섹션을 따로 만들어 두자.

링크모음을 공유할 때의 주의점

팀이나 친구들과 링크모음을 공유하면 작품 추천과 할인 정보가 빨리 돈다. 다만 공용 문서에 계정 정보나 개인화된 쿠폰 코드를 적지 말자.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공유가 금지될 수 있고, 무엇보다 보안이 취약해진다. 공용 문서에는 공지 링크, 기획전 링크, 작품 소개 페이지까지만 넣고, 각자의 북마크와 쿠폰 관리는 개인 문서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링크가 바뀌는 문제도 있다. 이벤트가 끝나면 주소가 404로 사라지곤 한다. 이런 링크는 색으로 구분해 유효 기간을 표시하고, 일정이 끝나면 문서에서 아예 삭제한다. 오래된 문서는 거름망이 없다면 금세 쓰레기통이 된다. 월말 10분만 투자해 청소하면 다음 달 효율이 다르다.

작은 숫자의 힘, 15분의 루틴

많은 독자는 무료웹툰 링크모음을 만드는 작업을 번거롭게 여긴다. 하지만 매달 15분 정도만 일괄로 투자하면 한 달 내내 클릭 수가 줄어든다. 정말로 숫자가 체감된다. 새로 찾은 작품을 읽는 데 쓰는 시간이 늘고, 결제 화면에서 멈칫하는 일이 줄어든다. 무료 혜택을 챙기는 건 단순한 절약을 넘어, 내 취향의 지도를 만드는 일이다. 어느 플랫폼에 내가 좋아하는 장르와 작가가 많은지, 어떤 이벤트가 내 독서 리듬에 잘 맞는지 점점 선명해진다.

마지막 정리

무료웹툰을 잘 보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공식 플랫폼의 링크모음을 손에 쥐고, 월별로 이벤트와 대기권의 주기를 정리하자.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리디 웹툰 같은 핵심 사이트 주소모음을 북마크하고, 나머지 플랫폼은 장르 취향에 맞춰 보조로 얹는다. 불법 복제나 출처 불명의 링크는 멀리하자. 안전을 지키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생태계에서 읽어야 더 많은 작품이 돌아온다.

링크모음은 단순한 목록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한 달의 시간을 디자인하는 도구다. 월초의 15분, 월중의 10분, 월말의 10분. 이 세 타임블록만 지키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양이 자연스럽게 늘고, 읽는 리듬도 반듯해진다. 그 사이사이에 새로 만난 세계가 들어오고, 익숙한 캐릭터가 자라난다. 무료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기획과 주기를 읽는 눈이 생기면, 그 자체가 재미가 된다.